

전남·북 다문화 가정 학생수 전국 최다

1인당 지원금은 전국 최하

정부 주먹구구식 배분...부산 164만원, 전남 26만원

전남·북 지역 다문화 가정 학생수가 전국 최고인 반면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습환경이 악화하고 중도탈락 학생이 늘고 등 부작용이 심각해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재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혜규(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남·전북 교육청의 다문화 가정 학생 1인당 평균지원비는 각각 26만9000원, 26만원이었다.

전남·전북의 평균 지원비는 전국 교육청 순위에서 각각 13, 14위다. 이는 전국평균(51만4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반면, 1인당 평균 지원비는 부산(164만2000원)이 가장 많았으며, 경북(115만3000원), 대전(113만6000

원), 광주(98만1000원) 순이었다. 이는 당국이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 가정 자녀수, 재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배분 방식을 채택한 때문이다. 교육청의 자체 예산규모는 물론 교육예산 대부분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치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 1인당 평균 교육비가 가장 많은 부산의 다문화 가정 자녀수는 1337명으로 전남(2898명)·전북(2035명)에 비해 적은 부산의 다문화 가정 예산은 모두 22억여원으로 전남·북을 크게 앞서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수 전국 3위, 6위인 전남(2898명)·전북(2035명) 지역 지원되는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각각 7억8000여만원, 5억30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부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이런 탓에 전남·북 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를 지도하거나, 학

Table with 2 columns: 순위 지역, 1인당 지원비. Lists 16 regions and their per-student support amounts.

자료: 임혜규의원실

습을 도와주는 이중언어 강사를 채용한 학교가 손꼽을 정도로 학습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혜규 의원은 "전남·북 시도교육청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예산을 확충하는 노력이 절실"이라며 "특히 이들의 교육에 필수적인 이중언어 강사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랑의 김치 담기 (사)광주시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단은 11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사랑의 김치 담기' 행사를 가진 뒤, 이날 담근 김치를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고층건물 231곳 소방안전 특별 검사

항공기 소음 노출편 심장마비 확률 높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11일 "오는 20일까지 16층 이상 건축물과 25층 이상 아파트 등 고층건물 231곳에 대한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비행 소음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성이 일반인 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계기로 이뤄지는 특별소방 검사에서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스위스 베른대학의 마티아스 엑거 교수는 이 연구에서 매일 평균 최소한 60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된 사람들은 45데시벨 이하 소음에 노출된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 사망 가능성이 30% 높다고 분석했다.

특수학급 있는 광주 초·중·고교 장애인 편의시설 전국 꼴찌 수준

장애인 특수학급이 있는 광주지역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평균 설치율은 68.0%(전국 평균·78.6%)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였다. 전남은 83.2%로 5번째로 설치율이

높았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점자블록 유무·장애인 화장실·승강기 설치 등 모두 11개 부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평균한 것이다.

광주의 경우 장애학생에 필수적인 승강기와 경사로가 설치된 학교는 전체 171곳 가운데 82개교에 그쳐 전국에서 두번째로 설치율(48.0%)이 낮았다. 전남도 372개 학교 가운데 231곳(설치율 70.6%)이 설치돼 전국 평

균(70.5%)을 겨우 넘어섰다.

전남은 9개 부문 설치율에서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으나 유도 및 안내시설(46.2%), 경보 및 피난시설(41.6%)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의 경우 광주가 59.1%로 전국 평균(51.0%)을 크게 웃돌았으나, 전남은 45.7%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배은희 의원은 "승강기는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필수 시설임에도 이를 설치한 학교가 드문 실정"이라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장애학생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Weather forecast for today (오늘 날씨) and a map of South Korea showing regional weather conditions. Includes a table for sea temperature and wind speed.

Advertisement for Touch 1 card, a contactless payment method. Includes a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TX train services, highlighting the 44th anniversary of the Hwasong branch line and the new Hwasong branch line.

Advertisement for KJHR (국제보청기) hearing aids.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on a horse and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Large advertisement for the 13th Seopje Boseong Sound Festival (제13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Includes details about the festival dates (2010.10.16-17), location, and featured performances.